현불논단

‘지금 여기’, 불자 위한 최우선 명제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불교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왜’ 부처되는 길 걸으셨는지 살펴야
이 질문, 삶의 전환점 제공하고 있어

부처님, 괴로움 만드는 현실 직시하고
그 굴레에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현실 떠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어

현실 직시하고, 괴로움 조건 회피 않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가르치다 보니,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 질문에 편안하게, 그리고 잘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은 듯하다. 혹은 그것에 답변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당황하지 않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많은 것 같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수 있겠지만, 필자는 불교의 출발점을 보자고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것인지, 좀 더 훌륭한 수행자, 훌륭한 불자가 될 것인지 고민한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핀다. 하지만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리 활발한 것 같지 않다.

필자는 그 지점 곧 ‘왜’ 부처가 되는 길을 걸으셔야 했는지의 출발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은 ‘왜’ 부처가 되는 길을 걸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부처로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제공한다. 이 질문은 다시 ‘부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못견뎌 하셨기에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셨던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거기에서 태자 싯다르타가 부닥쳐야 했던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많은 답변-경전 안의 가르침들은 그것이 약육강식의 현실, 신분과 계급에 따른 삶의 불평등 등에 있음을 알려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편으로는 당신이 부닥쳐야 했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실의 조건, 곧 괴로움의 굴레를 벗겨내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당신이 부닥쳤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굴레에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관념적 답변에 몰두하지도, 관념적인 답변을 만들어내지도 않으셨다. 어쩌면, 아니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맞서는 현실주의자로서의 태도로 일관하셨다.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에도, 삶을 구속하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실의 조건들이 있다. 우리가 불교, 부처님이 갔던 길을 좇아가는 불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다. 현실의 괴로움은, 그리고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 다양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조건들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다양한 현실의 괴로움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라는 한마디로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

현실의 다양한 괴로움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직면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의 품에 의지하여 냉큼 도망가는 회피로는 현실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부닥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만들어낸 조건들을 분석하고, 그 조건들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그 ‘현실’이라는 지점을 떠난 곳에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이 제시한 길을 따랐던 수많은 큰스님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렀다. “지금, 여기에서”라고.

교리의 해석이나 교리의 명칭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존재하는 다양한 괴로움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조건들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라는 단호한 명제는 우리 불자들에게 요구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자비(慈悲)는 다른 사람을 크게 온전히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연민의 마음이 더해진 마음을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남을 찬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 어디에서 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으로부터 평온하고 행복한 자기 마음에서 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친절과 찬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번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고, 찬탄을 해 주세요. 작은 친절, 찬탄하는 말 한마디, 선한 행위 하나가 하루를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여 찬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면 잎은 가지를 의지하고, 가지는 줄기와 뿌리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줄기와 뿌리가 나무의 중심이 된다고 해서 잎사귀는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잎사귀들의 광합성 작용으로 가지와 줄기, 뿌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자기를 무한대로 키워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백 배, 천 배, 만 배 늘어나게 됩니다. 남에게 나눠주면 줄수록 모든 사람과 일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많은 사람은 거두어들일 것도 많아집니다.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면 평소 남을 돕지 않은 사람입니다. 항상 마음 속 깊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해 주는 것이 하루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양보를 받았다면 손을 흔들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하루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보다는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라는 아량이 넓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넓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자비의 꽃을 활짝 피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說

영산대 불교동아리 창립에 부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영산대에 불교동아리가 창립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7일 경내 문수법당에서 ‘영산대 불교동아리 1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는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 만에 이룬 첫 쾌거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영산대 불교동아리에는 64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지도법사로는 덕현 스님이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의 창립에는 덕현 스님의 공로가 컸다. 전법위원으로 위촉된 덕현 스님은 곧장 영산대 불자 교수를 찾아 면담을 했고, 동아리 창립 절차에 들어갔다. 9월 개학 이후에는 영산대 교내에 현수막과 전단지를 부착하며 홍보를 시작했다. 학생들과 만나기 위해 직접 간식을 들고 교내를 다니며 학생들에게 동아리 창립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또한 영산대 불자 교수들의 도움과 양산불교사암연합회의 포교기금 300만원 지원도 창립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앞으로 영산대 불교동아리는 매월 1회 정기 법회 및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법회는 학생들의 정서에 맞춰 차담 및 명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예정이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이는 양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도 해당되는 명제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라는 ‘동기부여’는 지도법사의 ‘발심’으로 이어졌고, 불자 교수와 지역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영산대 학생 64명이 귀중한 불연(佛緣)을 맺게 됐다. 이를 시작으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목표로 한 ‘1교구 1대학 지원’이 빠르게 시행되길 기대한다.

유인촌 장관, 진우 스님 당부 잊지 말길

한국 문화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유인촌 장관이 임명됐다. 유 장관은 첫 일정으로 10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기실 유 장관은 불교계에는 낯선 인물이 아니다. 15년 전 故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재직 당시 이명박 정부의 문체부 장관으로 기용됐고 이런 이유로 불교계와 직·간접적인 인연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인연이 좋게만은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008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검문 등을 이유로 종교편향 문제가 강하게 불거지면서 종교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2010년에는 대구기독교연합회 목사들과의 면담에서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해 “호텔” 등을 운운하며 정부 지원사업비를 불교계가 마구 쓰고 있는 것처럼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으며, 유 장관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을 비공개로 면담하며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2011년 제44대 문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12년 만에 다시 문체부 장관이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을 거치며 쌓은 여러 부침과 경험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좋은 거름이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종교를 떠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진우 스님의 당부도 잘 새겨주길 바란다.

최근 한국은 팝, 드라마, 영화 등에서 세계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뿌리 깊은 불교 등 전통문화가 기반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와 더불어 문화적인 강국이 돼야 함을 유 장관은 잊지 않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 8017-1010 ⓕ 8017-1011